34과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 김현동 목사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위에 은혜를 더해주셔서 구원받은 저희들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어린 영혼들을 맡겨 주시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더욱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 성실하게 준비하고 주님께 의지하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때에 우리아이들이 기뻐하고 많이 변화되어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공과시간에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공과 제목은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제목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제목은 일종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오천 명을 먹이셨다.

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제목을 붙인 것이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 말고요, 결과의 원인을 가지고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수 있을까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어린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셨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먼저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두 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찾을 겁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찾을 건데 먼저 요한복음 6장을 보시 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거기까지 하시고 6장 접으시고 마가복음도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자 여러 군데를 번갈아가면서 찾을 겁니다.

순서대로.

마가복음 6장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네 다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이번엔 5절입니다.

5절과 6절.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 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다시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3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네 다시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찌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 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10절 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 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찼더라

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 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 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이니라 하시니

네. 길지만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오병이어 이 사건은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두면 이렇게 그 유익한데요, 외우기가 쉽습니다.

1, 4, 6, 9, 6 이렇게 외우면 돼요

1, 4, 6, 9, 6.

언젠가 탐이나서 외웠습니다.

도대체 오병이어 사건이 몇 장 몇 장 몇 장에 있을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순서대로 14.6.9.6. 1.4.6.9.6.

14장, 6장, 9장, 6장

지금 읽은 마가복음도 6장에, 요한복음도 6장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말뜻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오병이어를 검색하면 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횟집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횟집.

예수님의 신성한 사역에 횟집이라니 좀 당황스럽죠.

사람들이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횟집 차릴 때 이 오병이어를 상호 명으로 가장 많이 붙이는가봅니다.

아무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공생애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분수령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기대는 최고조에 오르게 돼요.

그 기대감으로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이 뭐냐면 임금 되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나오죠? 본문에?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바다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거기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자기를 믿는 것이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며 그렇게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 주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심 주제가 돼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이 주제의 무대가 된 사건이 바로 오병이 어 사건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개관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재확인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수 십 년 전에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완성되 었고

수 십 년이 지났는데 그 수 십 년 후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재동을 거는 거짓교사들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사도요한만 고령의 나이로 생존해 있었는데 섭리였죠?

그 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입증해 낼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사도요한이.

그래서 사도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 특별히 7개의 이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7개 이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표적으로 제시합니다.

자 이것을 7대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과 선언들을 모아가지고 과연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7대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본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대 표적과 7대 선언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입증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소 난해하고 길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외로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대 표적과 7대 선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 재확인 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대 표적과 7대 선언은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7대 표적과 7대 선언.

한 글자씩 따서 외우면 편합니다.

포, 신, 삼팔, 오, 바, 실, 그다음 마지막 나

포, 신, 삼팔, 오, 바, 실, 나 의미는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7대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떡, 빛, 문, 목, 부 혹은 생으로 외우셔도 돼요. 부, 길, 포

네. 7대 표적을 보십시오.

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첫 번째 사건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삼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오가 바로 여기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바, 요게 헷갈릴거에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안 나와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나오게 됩니다.

실 실로암 못으로 장님을 고치신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7대 선언은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고 선언 하신 걸 말합니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고.

그래서 7대 표적과 7대 선언을 외우고 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 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요한복음이 잘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병이어는 7대 표적 중에 4번째 사건이죠?

4번째 사건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첫 번째 선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떡을 주신 사건으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주소를 찾아가면 유익하고요.

이제 오늘 공과 본문 묵상의 4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과 묵상할 때 오늘 이제 4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을 때 그 때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이 첫 번째 공과 포인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의 마음.

그 마음이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준 것으로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또 하나의 포인 트이고

그리고 네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라는 거 에요.

자 이 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무엇으로 묘사 되시냐면 생명의 떡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공과 끝에 와 예수님이 놀랍게 주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분은 떡이라고.

그 분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걸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런데 믿는 게 먹는거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믿는 일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계속 강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그 분의 능력을 제자들이 간과했을 때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떡이 부족합니다. 혹은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반응이었다라는 얘깁니다.

자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신들의 형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 락의 규모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로지 도시락 주인인 어린아이의 마음 에 집중하셨죠.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으며 실제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교훈해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아이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그 아이의 마음 밭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냐는 거에요 마음 밭에서 일하시는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믿을 때 떡을 먹는거에요.

눈에 보이는 떡은 입으로 먹죠?

안 보이는 떡은요?

마음으로 먹는데, 마음으로 먹는다 라는 표현을 믿는다 라고 정의해 주신 겁니다.

자 믿는 것이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공과 묵상을 쭉 한 번 진행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읽었던 본무의 무대, 시간적 배경은 저녁입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첫 번째 질문.

오전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다가 저녁때가 되었는데 이제 배고픈 그들에게 가 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답은 떡입니다 떡.

자 그렇다면 비슷하게 인생의 저녁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혹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그렇죠.

죽어 있으면 지옥으로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이 가장 고파하는 것

이 있다면 영생입니다.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그 영생의 욕구.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겉으로는 복음 말고 다른 거달라고 하나님께 조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한 구절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래서 몰려다녔어요.

따라다니면 배부를 수 있으니까.

오늘날의 교회당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실적인 축복을 고대하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뭐가 가장 필요했냐? 떡이었고

뭐가 가장 필요하냐?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 자들이 말 했어요.

예수님, 아 그 사람들 그냥 마을로 보내가지고 알아서 거기서 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알아서 그냥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

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은 아니에요.

다 아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자들에게 어떤 책임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책임감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을 일부러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영육 간에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줘야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 책임감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날 중요한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남기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어린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는 얘기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너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간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네가 해야 된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해줬지만 내가 가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거거 든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보더라도 이 오병이어와 관련해서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사역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그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일깨워 주시려고 질문을, 요구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사인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초등부 교사인 아무개야 네가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이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고 구원으로 인도하거라.

왜 저한테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러실거에요

너에게 그런 책임이 있단다.

너는 내가 교사 직분을 부탁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도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 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죠?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라는 겁니다.

일단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의 대답이 나옵니다. 보시면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찌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뭐뭐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구 요

이어서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쩜쩜쩜"얼마나 되겠삽나이까

안드레는 대답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자 빌립과 안드레 빌립은 부족을 말했어요.

부족합니다.

안드레는 얼마나? 를 말했습니다.

둘 다 눈에 보이는 양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빌립은 돈의 양을 가지고 그리고 안드레는 음식의 양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둥 얼마 안 된다는 둥 네 이런 대답을 했다 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거 안 될 거 에

요, 곤란하죠,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을 서슴지 않고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가 빌립과 안드레 유형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가지고 전도 안 될 거 에요.

혹은 눈에 보이는 부족한 것을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거 진행하기가 곤란해요.

그렇다면 아직은 빌립과 안드레일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내린 결론은요 비정상적인 결론이 아니었어요.

이성과 상식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할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되게 계산을 잘 돌려봤거든요.

빌립은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계획을 세워 보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안드레가 내린 결론은요, 현실의 상황으로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안드레가 파악한 현실의 상황으로는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맞아요.

현실에서는 그게 맞았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빌립과 안드레처럼 결론을 내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쭉 해나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게 전혀 이상해 보이

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빌립과 안드레가 이상합니까?

소위 정상이거든요?

자연스러워요.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예수님 앞에서는 이 대답이 참 어이가 없게 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서의 그들의 대답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이었는지를 일깨워 주시려고 어린 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럼 빌립과 안드레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빌립과 안드레가 이런 결론을 내린 원인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빠져서 그래요.

어떤 일에 예수님을 확 빼버리면 주님의 능력이 빠져있는 대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두 종류에요.

주님이 들어가 있는 대답과 주님이 빠져있는 대답.

간증도 두 종류겠죠?

주님이 들어가 있는 간증. 주님 안 들어가 있는 간증.

애초에 주님 안 들어가 있는 간증은 간증이라고 말 안 해요

그냥 말이라고 그러지.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뺐어요.

이게 가능하다 라는 거에요.

신기하죠.

예수님과 곁에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했던 빌립과 안드레가 옆에 있는 예수님 빼고 대답 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분이 배제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신기한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는 주님께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달려있다. 라는 것을 간과해 버리면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 분을 관객처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날 빌립과 안드레가 주님은 관객이세요

제 결론을 들어 보세요 이렇게 된 거 거든요.

주님을 관객처럼 만들어 버리는 대답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빌립과 안드레는 부족하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요렇

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님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능력이시잖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능력되시는 주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했어야 맞지 않을까?

빌립과 안드레 제자들의 반응은 안 돼요 안 돼 틀렸어요. 틀렸어. 가게하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가서 뭘 먹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줘야 하는 분반교사로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미약함을 핑계로 아이들의 가르침을 소홀히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우 저는 아시잖아요? 아직 교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하고저는 체력적으로도 미약하고 지혜의 측면에서도 참 보잘 것 없어요 그래서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대답 말고 이런 푸념의 기도 아닌 기도 말고 그러니까 능력되신 주님께서 이번 주에 저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능력되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분반의 능력을 보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면 가르치는 쪽으로 풍성하게 되는 오병이어 분반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부족한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개입 시키는 사건이거든요.

아이가 예수님을 개입시켰잖아요.

뭘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여기 있어요. 이제 개입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경험 하냐?

부족한 사람 중에 없는 사람 중에 거기다가 예수님 개입시키고 그 분의 능

력을 고대하고 그리고 자신의 작은 것을 드릴 때 그때 풍성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4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것은 무엇인가요?

오병이어죠.

네. 요즘 말로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것은 자기 도시락이었습니다.

도시락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자기 자기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자기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도시락은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 된 도시락이었고 오로지 한 끼의 식량 분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수천여 명 중에 이 아이 하나였다 라는 거에요.

이 아이가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설교 말씀으로 자주 들었던 이 아이야 말로 성령 충만했던 겁니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정상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죠?

풍성한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반응이 뭐냐? 뭐냐?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날 말씀에 반응을 보였어요.

말씀을 들은 결과 그 반응으로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 전부를 드리게 드리는데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풍성한 말씀 앞에 집중적으로 노출 돼 있으면 성령 충만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본래 마음처럼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자신의 것을 전부 드릴수도 있을 겁니다.

이 도시락은요 다섯 개 두 개였으니까 객관적으로 아주 작은 거였습니다.

작은데 보세요 작은 거였는데 현재 이 아이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고 전 부였어요.

어린이 찬양에도 요 가지 것 가지고 무얼 해요? 요 가지 것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요 가지 것이라는 작은 규모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이 입 장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배고픔을 위해 준비 된 준비한 도시락이었고 이 어린아이 마음에 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다섯 개 두 개 라는 외적인 규모에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드린 아이의 마음에 주목했습니다.

이 마음이 이날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된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 옛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드렸던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으로 만든 한 끼의 식사 분.

그 한 끼의 식사가 놀라운 기적을 이후에 나타낸 것은 그 재료가 특별해서 가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외적인 재료들은 참 소소해요.

그런데 그 재료를 내놓는 사람의 마음은요 엄청 크다 라는 얘깁니다.

그 마음이 참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아주 극히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 시겠죠?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구나.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기적 경험하기를 어려운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틀림없이요, 이 도시락을 드리고 있는 이 아이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 쳤을 겁니다.

설마 여러분 상상에 이 아이가 도시락 주면서 인상 찌그리고 이거 내가 숨 기려했는데 들키고 말았다 하~ 억울하다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내가 이렇게 뺏길 줄 알았다

뭐 이런 표정으로 흐~ 가져 갈 거면 가져 가세요 이러지는 않았겠죠.

이 굉장히 기쁨과 감사의 그런 그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서 기쁘고 감사했을 거 에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이렇게 풍성히 듣고 나면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 기쁨 과 감사가 생깁니까?

그게 먼저 돼야 되거든요.

말씀 떠나서 몰려오는 피로감이 먼저 이렇게 떠오릅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말씀 후에 보여야 될 정상적인 반응은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기쁘네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이 마음이 먼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 거고 자기가 가진 것을 그 분께 드릴 수 있어 서 기쁘고 감사했을 거에요 만약에 저녁이 아니고 낮이었다면요?

약간은 불필요한 것이 도시락이었을 겁니다.

배 안 고프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되니까 자기 것이 드려도 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배고프니까.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남들이 보기에 이건 작은 거였어요.

나한테는 중요한 거지만.

작은 거지만 예수님은 고맙게 받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작은 것을 고맙게 받아 주셔서 아이는 기쁘고 감사했을 겁니다.

누가 내 작은 것을 되게 고맙게 받아주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내거 도시락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쫘악 좋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야~ 내가 오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라는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뭔가 뭔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하고 났을 때 왠지 주 님이 이렇게 칭찬 한다 라는 그 그런 느낌을 받죠?

그때 불쾌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린 참 되게 순수한 기쁨과 감사를 그때 느끼게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올라오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기쁨과 감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축사하시게 만들었는 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날 이 아이의 행동을 보십시오.

드렸죠?

드린 직후에 처음 반응은 처음 이 마음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딱 드렸을 때는 바로 평안이라는 게 왔을 거 에요.

여러분 이렇게 드려야지 드리면 기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딱 드리고 났을 때 이 내 마음에 찾아 오는 건 평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기가 드린 것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자기가 드린 것이 하나님을 통해 사용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평안 뒤에는요, 감격이라는 게 와요.

와~ 쓰셨네? 와~ 이걸 통해 역사 해주셨네? 라는 이렇게 감격이 옵니다.

그리고나서 집에 돌아 서는요. 이 아이는 확신이 생겼을 거 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해야지?

왜? 너무 좋은 일이었고 너무 이제 가슴 벅찬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죠?

자원해서 기꺼이 드렸을 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는 감격이 밀려오죠.

이 후에 또 다른 일상에서도 나는 드릴 수 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이어서생기게 됩니다.

평안, 감격, 확신.

이런 거 우리도 한 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보여요

맞아 맞아 이렇게.

자 우리도 도시락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도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는데 아침에 틀임없이 도시락 싸가지고 오셨을 거 에요.

시간이라는 도시락, 체력이라는 도시락, 물질이라는 도시락. 분반 준비라는 도시락.

그 도시락이 주님께 기꺼이 드려지고 귀하게 오늘 하루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면 평안, 감격, 확신의 순으로 오늘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 질 겁니다.

아 내가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평안, 감격, 확신이 또 생기겠지?

평안 감격, 확신의 연속 된 마음의 순환의 삶을 살고 있다면 참 신나죠.

신앙생활을.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사건은 이때만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

오병이어를 가졌던 아이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재현되면 지금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한 예죠.

그래서 아마 머릿돌에 다섯 살 난 아이가 이렇게 20원 정도의 헌금을 하면서 이걸로 성경, 신약성경을 사서 인도로 좀 보내달라고.

뭐 20원이니까 성경 사겠어요? 신약성경을?

그래서 목사님이 돈 좀 보태가지고 신약성경을 사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적어 가지고 이렇게 인도로 보냈는데, 이 목사님이 20년 뒤에 인도를 갔네요?

어느 마을에 방문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많은 거 에요.

궁금했어요.

언제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었냐고 하면서 쭉 옛날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선교사가 이 성경책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책 보니까 너덜너덜해져있는데 신약성경인데 맨 뒷장 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 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본겁니다.

이 아이의 작은 헌금으로 마련된 성경이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폭발적으로 살려낸 것이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좀 황당한 질문인데 만일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자기만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고팠잖아요?

이런 상상 해보십니까?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말자 말자 말자 말자 말아먹자.

만약에 자기가 이 도시락을 이렇게 그냥 자기가 먹었다면, 네, 자기 배는 든 든했을 거 에요.

그러나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진맥진 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배 퉁 두들기면서 룰루랄라 하고 산을 내려왔겠죠.

그런데 집에 돌아 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상했을 거 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침부터.

근데 나는 말씀을 들은 결과가 무엇이지?

밥만 먹고 왔잖아요.

말씀이 나의 어느 부분을 변화 시켰을까?

말씀으로 내가 과연 새롭게 되었나?

내가 오늘 뭐가 변화 되었지?

말씀은 나를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나는 어제랑 오늘 똑같잖 아

그리고 빈 도시락 바구니를 보면서 생각했을 거 에요.

내가 만일 혹시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속의 오병이어겠죠?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풍성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변화되는 행동도 보이지 못 했다 라는 그런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빈 도시락을 보면서 배를 움켜쥐면서 내려간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안타까운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했는지도 모릅 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슷한 회의감에 빠질 수가 있다 라는 거에요.

우리도 들에서 산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루를 마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회의감이 찾아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회의감의 연속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 앞에 많이 있었다면 내가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적어도 이 아이가 했던 것만큼 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게 있는 것을 드리면 그런 이 어린 아이 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도 받아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는 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도시락을 가져왔을까요?

자 여기에 숨겨진 그 배경은요. 아이만 도시락이 있었냐? 아니 몰라요.

아이에게 도시락이 있었던 건 맞는 맞는데 다른 사람 도시락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단정은 못 짓습니다.

내용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추측을 해 보는 거 에요.

많은 사람이 도시락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며 아마도 이 아이만 도시락을 갖고 온 오지 않았겠느냐? 라고 상상을 해보면 더 교훈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아침부터 이 아이는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열렬했다 라는 거 에요.

유독 이 아이만.

그래서 말씀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길게 듣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딱 눈뜨면서 하~ 나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하~ 나 예수님하고 오늘 종일 있고 싶은데

아후~ 잘 좀 부탁 얘기해 봐야겠다.

"엄마 저 오늘 좀 나갔다 와도 돼요?"

"또 나가냐?"

"네 좀 오늘 오늘도 예수님 만나러 가도 돼요?"

"맨날 예수님 이냐?"

"예수님 너무 좋아요"

- "그래 그러면 갔다가 점심때 와"
- "그게 아니고요 엄마. 제가 오늘 길~게 있고 싶어요"
- "얼마나 길게?"
- "길~게"
- "그러니까 얼마?"
- "해질 때 까지"
- "이 녀석이"
- "엄마 딱 한 번만"
- "그래 그럼 갔다 와"
- "하 그런데 엄마"
- "왜 또?"
- "도시락 좀요"
- "도시락은 왜?"
- "오래들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 그게 맞으니까
- "그래 알았다"
-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축축축축축 해가지고 다섯 개 두 개를 딱 넣어주고 "옛다 도시락"

크~ 이 도시락을 가지고 집을 나오는 이 아이의 발걸음 상상해보셨습니까?

마하의 속도로 달려갔을 겁니다 쉬익~ 이렇게

이야 이 도시락을 들고 말씀 듣는 이 아이의 눈빛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처럼 흐릿하지는 않을 거 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처럼 초롱할거에요.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이렇게.

자. 이 아이가 이날 괜히 오병이어 드린 거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먹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아이에게 도시락은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시락 갖고 다닌다니까요?

자 교사의 도시락이라는 게 있어요.

교사다운 마음을 가지면 교사도시락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가지고 때론 아이들에게 나눠 주기도 하고 때론 선생님들 에게 나눠 주기도하고 때론 주님께 직접 드리기도 할 겁니다.

자 이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이 아이의 마음은 너무 좋았을 겁니다.

우리도 주일학교에 올 때 혹은 말씀을 만나러 올 때 이 마음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주일 어? 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는데 내가 오늘 충~분히 봉사 할 수 어 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자면 도시락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인내의 도시락, 뭐 이렇게 성실의 도시락, 뭐 최선의 도시락, 뭐 분반 준비라는 도시락, 뭐 기도의 도시락.

도시락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허기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가끔 2부 말씀 끝나고 빨리 가시는 분들 보면 아 배고파서 가시는구 나, 어머 도시락안가지고 오셨구나.

돌아가실 수밖에 없을 거 에요 허기지니까.

기진맥진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선생님은요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겠죠.

처음에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잖아요. 이 아이는요

처음부터 뭐 드리려고 가지고 왔겠습니까?

먹기 위해 가지고 온 소중한 도시락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듣고 난 저녁때에는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 에요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포기한 사건이에요. 포기한 사건.

아이는 이날 이 도시락을 베풀었다기보다는요, 일종의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것을 그 즐겁게 포기한 거 에요.

즐거운 포기 참 재미있는 제목이죠.

현재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인 것을 기꺼이 이날 포기한 겁니다.

일부를 떼어준 게 아니고요 전부를 드린거거든요? 통째로.

이러한 포기로 예수님께 즐겁게 드린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가 가진 어떤 그 넉넉한 것 중에 일부를 떼어주었다면 베푼 거죠.

그런데 포기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떼준 거지.

그래서 베푼 것은 맞지만 오병이어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병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거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희생도 없고 아픔도 없는 약간의 베푸는 것은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그 말은 거기선 큰 주님의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 아이는요 포기함으로써 드렸죠?

그런데 드린 것에 그치지 않고 드린 그 것이 놀랍게 사용되기를 기대했어요.

설마 아이가 안 먹어요. 알아서하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저는 포기할 겁니다.

제가 포기한 이 소중한 것이 예수님께 갔을 때는 달라지겠죠?

저는 그걸 기대해요 예수님.

어서 어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아이의 마음에 확실했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기대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기대에 예수님의 응답이 이 오병이어 기적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구요

다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 공과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심어주고 싶은가?

자 이 공과를 쭉 묵상합니다.

아 내가 오늘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무슨 마음을 심어 줄까?

아이들이 아 선생님 나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

요런 마음.

나도 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심겨지려면요, 아이들 마음속에 먼저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거 하고, 그 예수님은 아주 아주 착하신 분이라는 것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착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드리면 능력 많으신 그 분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선생님 자신이 주님께 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나서 드려보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죠?

드리는 삶을 먼저 살아 보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드리는 삶이 주는 첫 번째 평안 그 다음 감격 그 다음 확신 이것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간증하듯 전해준다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본받 으려고 할 겁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필 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날 소재를 떡과 고기 떡으로 삼으셨을까?

답은 예수님 자신이 결국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날 떡을 통해 이적을 보여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 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첫 번째 7대 선언이죠?

자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떡은 먹는 거 에요.

먹으면 배부르죠.

그 포만감이 최고잖아요?

자 생명의 떡 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 그거는 먹어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성 생명의 떡이라는 건데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먹냐?

엉엉엉 이렇게 이렇게 뭐 해서 꿀떡 이렇게 삼키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는 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할 때 먹게 되는 거냐?

믿는 게 먹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 에요.

믿을 때 먹은 겁니다.

믿을 때.

그럼 우리는요?

다 예수님 먹었어요.

꿀떡 꿀떡 자 다음의 세 구절을 종합하면 알 수 있습니다.

6장 27절부터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라 앞에 1이 생략 돼 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이니라 (하시니)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이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영원 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다는 거고 믿는 게 먹는 거고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거 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6장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거 에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은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주제가 떡이라고 했죠?

그것도 생명의 떡? 먹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믿는 것이 떡 먹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을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기쁨의 떡을 먹는 거 에요.

영생의 떡을 먹는 겁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질문.

자 이걸 가장 많이 고민을 했어요.

가장 많이 묵상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왜 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버리는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어쩌면 식당 주인들이 좋아할만한 구절입니다.

뭐 제 생각엔 수양회 배식장소에 붙여두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실제 우리교회 말고 어떤 교회에서 식당에다 이 구절을 붙여 놨더니 붙여놨더니 잔반이 현저하게 줄었대요.

찔렸나봐요.

그런데 설마 예수님께서 식당문제나 환경문제를 걱정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까요?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참 아직도 묵상중인데, 묵상중인데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충분히 은혜가 베풀어진 뒤에 모두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은혜가 베풀어진 뒤에 여분의 은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분의 은혜는 지금 장정만 오천 명이니까 수천여명의 사람들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 여분의 은혜를 다 모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다 모아보니까 어떻게 됐죠?

꽤 많았더라는 거 에요. 열두 바구니나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열두 바구니면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 양이 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 이 열두 바구니 어떻게 했을까요?

땅파놓고 묻어놓고 잘 재워놓고 왔을까요?

아닐거에요.

다 모여 열두 바구니 모였습니다.

탄성을 질렀겠죠? 우와~

그리고는 제자들은 좀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셨을 생각났을 거 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축사하시면서 나눠주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응? 이렇게 주신 걸로 나눠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거두어 본 건데 되게 많아요.

이젠 물어보지 않고도 걱정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야 이렇게 많이 거뒀네?

이거 이제 우리가 나눠 줄 수 있겠다 맞아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그 열두 바구니에 가득한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댁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생겨 났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예수님께 올 때는 빈손으로 왔었는데 갈 때는 맛있는 것을 가지고 갔어요.

가족들은 집에 온 자기 가족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것을 이렇게 받아먹으면서 이거 웬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캬~ 이거요? 쫙~ 했더니 먹으면서 하~ 막 놀라운 거 에요.

이게 그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눠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위에 은혜러라 라는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은혜위에 은혜러라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한 번 은혜를 받으면 여러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은혜가 주어 진다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각자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서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은혜를 나눠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여분의 열 두 바구니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겨진 은혜로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참 풍성하면서도 아름다운 스토리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루었겠죠.

나눠주게 되었구나 우리가.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은 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은혜까지 얻었습니다.

당신은 은혜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죠?

그 본질적 은혜를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라는 고백처럼.

그렇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이 무엇이 죠?

전도에요. 전도.

아... 전도는 나누어 주는 거구나. 나누어 주는 것은 명령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죠.

주님 나눠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은혜이십니다.

자 남은 것을 하나도 버리는 일 없이 다 거두라고 하신 걸 보면 처음부터 나누어주신 떡과 생선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에요

만약에 막 싸구려여가지고 막 대량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뿌려준 다음에 막 남았어요.

아 그거 원래 싼 거야. 그냥 처분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싹 거두라고 하신 것을 보면 흘러넘쳤지만 그 각각의 것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주 귀한 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누어주신 그것들 하나하나가 대충 여길 수 있는 소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은 혜는 넘치죠?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배나 받았느니라.

죄 값으로 배나 받으셨어요

보혈을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흘러넘치는 보혈의 능력과 은혜 가 흔한 소소한 것들이거나 싸구려는 아니라는 거 에요.

넘쳤다고 하찮게 치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것은 아주 귀한 거였고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려고 넘치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아주 귀중한 것이 주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분은 그 분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게 하실 만큼 넉넉함이 되어주시는 분이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넉넉하게 해주신 것이지 결코 싸구려여서 넘쳐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복음동화 책도 있잖아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다.

자 열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칠 오병이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 해봐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오병이어는 뭘까?

내 인생의 현재에서 오병이어는 무엇일까?

특별히 초등부 교사로서 오병이어는 무엇일까?

지금 8월 말 이 팔월 중반 이 시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게 오병이어는 무엇일까?

남들에게는 작게 보이지만 내게는 소중한 그 어떤 것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받칠 때에는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때론 상실이라는 아픔도 지나가 지만 그 마음은 잠시에요 주님이 받아주는 즉시 몰려오는 그 마음에 평안이라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때 감격이 오죠?

그리고 다음에 또 드려야 되겠다는 그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평안, 기쁨, 감격, 확신 이런 걸 가져다주기 때문에 내게 오병이어를 만들어 내야 되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진행해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더 고민해 고민해보고 기도해봐야 됩니다.

난 무엇을 오병이어로 해야 할까?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는 그의 보잘 것 없는 작고 소 소한 것 남들은 작고 소소하다고 여기고 그에게는 소중한 그 어떤 것이 드 려졌을 때 거기서 능력을 베푸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공과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 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주시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 아이가 장차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사인 우리에게도 이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